
**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Dialogue:
Less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KDI-TAF-INPUMA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출장보고서

2011. 4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KDI 한국개발연구원

- 그동안 국제 원조활동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전통 공여국)들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 국제 개발협력분야에서 신흥 공여국들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부각됨.
 - 통상적으로 국제 원조 관련 논의에서는 국가들을 공여국(donor)과 수원국(recipient)으로 양분하지만, 여러 나라의 경우 공여국인 동시에 수원국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자신보다 상황이 좋은 국가에서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보다 상황이 나쁜 국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이들의 경우 시혜적인 원조(aid)보다는 국제 연대에 기초한 협력(co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
 - 또한, OECD DAC 회원국을 전통 공여국으로, 비회원국을 신흥 공여국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공여국 중 상당 수는 이미 1950년대부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
-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였으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이에 KDI는 아시아재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여, 2011.11.29~12.1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4)에 대비하고자 함.
 - 수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원조를 비교하며, 신흥 공여국간 원조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전통 공여국과 비교하고, 양 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동연구의 결과는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 예정(2011.10월 중)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 KDI-TAF-INPUMA* 공동주최 '개발협력에 대한 아시아의 접근법: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훈'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및 말레이시아 개발협력 관련 기관(ISTIC, MIDA)* 방문

* INPUMA: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②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기 간: 2011년 3월 21일(월) ~ 25일(금), 출·입국일 포함

③ 출장자 명단 : 총 5명

성명	소속	직책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장
김윤정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구실 연구원
김준경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수실장
서민영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연수실 연구원
Jomo Kwame Sundaram	UN	사무차장보 (국제기구 고위 전문가로 초청)

3

출장일정

□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3.21(월)	16:50	인천출발(임원혁, 서민영, 김윤정)	KE671
	22:40	쿠알라룸푸르 도착	
3.22(화)	10:00~16:00	말레이시아 개발협력 관련 기관방문 (서민영, 김윤정)	ISTIC MIDA
	19:00~22:00	INPUMA, 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주 최 환영만찬 참석(임원혁, 서민영, 김윤정)	Gardens Hotel
	22:40	쿠알라룸푸르 도착(김준경)	KE671
	23:59	쿠알라룸푸르 도착(Jomo Kwame Sundaram)	FY3522
3.23(수)	8:30~17:00	전문가 간담회 Day 1	Gardens Hotel
3.24(목)	8:30~17:00	전문가 간담회 Day 2	Gardens Hotel
	23:59	쿠알라룸푸르 출발	KE672
3.25(금)	07:20	인천도착	

□ 전문가 간담회(Asian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Dialogue: Lessons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일정

○ DAY 1: 2011.3.23일 수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Room Skyview 6, Gardens Hotel	8:30~8:45	세션1: Welcome and Introduction 환영사: 임원혁(KDI) 참가자 소개 및 2010.12 기획회의 결과정리: Anthea Mulakala(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8:45~11:45	세션2: Asian Approaches - 좌장: Nick Langton(아시아재단, 인도지부) - 인도: Sachin Chaturvedi(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Developing Country) - 중국: Wenping He(Institute of West Asian and African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 한국: 장영훈(수출입은행 EDCF) - 좌장: Nancy Kim(아시아재단 중국지부) - 태국: Banchong Amornchewin(Thail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 싱가포르: Koh Tin Fook(싱가포르 외교부) - 말레이시아: Zakri Jaafar(말레이시아 외교부) 토론 및 코멘트 - 김은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Prabodh Saxena(인도 Joint Secretary Bilateral Cooperation)
Room Skyview 1, Gardens Hotel 오찬: Skyview 2	11:45~14:30	공식환영행사 - YBhg Dato' Dr Mohd Jamil Ma'ah(Deputy Vice-Chancellor, 말라야 대학교) - Gordon Hein(아시아재단 부총재) - Senator A. Kohilan Pillay(말레이시아 외교부 차관) 오찬
Room Skyview 6, Gardens Hotel	14:30~17:00	세션3: Perspectives on Aid Architecture - 좌장: Khadijah Md Khalid(INPUMA) - Siriporn Wajjwalku(태국 Thammasat 대학교) - 임원혁(KDI) - Wenping He(Institute of West Asian and African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 김준경(KDI)

○ DAY 2: 2011.3.24일 목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Room Skyview 6, Gardens Hotel	8:30~9:00	회의 Day 1 정리 - Edward Reed(아시아재단 한국지부)
	9:00~12:00	세션4: Addressing Common Assumptions or Critiques of Asian Donors - 좌장: Herizal Hazri(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 기조연설: Jomo Kwame Sundaram(UN) - Sachin Chaturvedi(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 주동주(산업연구원) - Nie Fengying(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13:30~15:45	세션5: Lessons and Recommendations from Asian Approaches - 좌장: Gordon Hein(아시아재단) - TB.A.Choesni(인도네시아 National Public Procurement Agency) - J.S.Mukul(인도 외교부) - 임원혁(KDI)
	15:45~17:00	세션6: Wrap Up - 좌장: Kim McQuay(아시아재단 태국지부) - Anthea Mulakala(아시아재단 말레이시아지부) - Gordon Hein(아시아재단) - Khadijah Md. Khalid(INPUMA) - 임원혁(KDI)

1]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일시: 3.22(화) 9:00~10:00

장소: ISTIC

참가자: Lee Yee Cheong FASc(ISTIC Governing Board Chairman),
Gordon Hein(아시아재단 부총재) 외 10명

□ 주요내용

- ISTIC은 UNESCO 산하기관으로 출장, 전문가 파견 등에 관련하여 산하기관으로서의 이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UNESCO가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음.
- 남남협력 프로그램은 2년 단위로 UNDP와의 협력 아래 진행됨.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진행되므로 새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는 2년의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야 함.
- 이외에도 OECD의 남남협력 관련 부서와 동남아시아의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WB와 협력하여 말레이시아의 의료 및 태양에너지 분야 관련 남남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함.
- ISTIC는 남남협력 이외에도 미국과 같은 North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최근 미국과 양자 기술협력을 위한 계약을 맺음.
- ISTIC는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협력(North-South-South)이라고 생각함.

□ 질의 응답

- 아프가니스탄 및 여성권리향상에 대해 아시아재단도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가?
 - ISTIC는 2008년에 설립된 신생기관으로 아프가니스탄 프로그램에 관한 네트워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주로 대사관을 통해 아프간의 과학기술부로 연락을 취한다. 만약 아시아재단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ISTIC와 부합한다면 아시아재단 역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ISTIC는 하나의 특정한 협력기관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 아프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JICA가 기존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 참석자들 간의 지식공유는 이루어지는가, 참석자들은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서로 지식공유를 이어가는가?
 - 보통 워크숍을 개최할 때 참가자는 정책결정자 수준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국에 돌아가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나의 경우 교육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추후 가나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파를 도왔다.
- 무슬림 참가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가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가?
 - 보통 신청서를 받고 이를 심사하여 참가자를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지식활용 및 전파 가능성으로, 참가자가 자국에 귀국하여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지, 향후 더 높은 레벨로 진급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참가자가 속한 기관의 규모가 큰지도 고려한다. 또한 프로그램 주제와의 연관성 및 참가자의 국적도 고려한다.(한 국가당 한명에 한하여 무료로 워크숍 참석 가능)

- 과학기술 관련 남남협력의 주제가 상당히 방대한데 프로그램의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주제는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공급) UNESCO가 주로 공급자의 측면에서 주제를 정하면 ISTIC가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한다. (수요) 반면 몽골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자인 몽골 측에서 요청을 하여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 현재 태국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는가?
 - Governing Board에 태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현재 태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이 없다. 프로그램에서 파트너를 선택할 때 ISTIC는 국가 간의 영향력을 고려하는데 주로 고수입의 남측 국가를 선호한다. 태국 전문가가 ISTIC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새로운 협력구조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②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일시: 3.22(화) 15:30~16:30

장소: MIDA

참가자: Tan Sri Sulaiman Mahbob(MIDA Chairman) 외 12명

□ 주요내용

- MIDA는 MTCP(Malaysi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p.28 이하 참조) 및 소규모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 중 MTCP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협력 및 능력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보스니아 등 개도국을 상대로 자문사업도 진행하였음.
- MTCP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에서 주로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JICA 외 UNDP 및 아시아재단과도 연계되어 있음.

- 소규모 자문사업은 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라오스 및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IT교육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 현재까지의 역량배양 프로그램은 주제 선정에 외교적 영향이 미쳤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질의응답

- 현재 말레이시아는 남남협력 증진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국제개발협력 및 남남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기술협력을 받는 입장 혹은 주는 입장 모두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남남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향후에는 더 많은 다자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또한 말레이시아는 경제성장의 분배, 즉 부의 분배를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도층에게만 경제개발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좋은 거버넌스 수립, 투명성 제고, 부패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 워싱턴 컨센서스가 붕괴되고 신흥공여국의 원조 원칙을 포함한 새로운 원조 architecture가 대두되고 있는데 MIDA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북남협력과 남남협력을 비교하자면?
 - (양자)북남협력에서 공여국과 수혜국의 입장은 형과 아우의 입장과 같다. 북남협력은 자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공여국이 수혜국을 위한 리서치를 수행하기도 한다. 남남협력의 경우는 서로 지원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경험을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남남협력을 수행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는가? 신흥공여국 간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분업구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신흥공여국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 및 소스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고 특히 환경과 같은 분야에서는 서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경험을 공유하려는 신흥국가가 많을수록 개도국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말레이시아 기업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해외 투자를 받는가?
 -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열고 기회를 얻으려고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국내 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에 FDI를 받으려고 하며 정부로부터의 보조는 거의 받지 않는다.
- 남남협력을 수행하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특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공통된 운영체가 있어 서로간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특히 Colombo Plan(p.13 참조) 등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을 개편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기존 조직의 운영 사무국을 활용할 수 있다.
- 만약 말레이시아가 개발경험을 공유한다면 어떤 사례가 best practice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이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등에 팜오일의 생산과 관련하여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 환경과 해양 관련 분야의 개발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① Asian Approaches

1. 인도의 개발 파트너십: 이슈와 정책방향

□ 개발협력의 역사

- 인도는 1947년 독립 이래 남남협력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왔으며, 인도와 남측 개도국 간 이니셔티브에 따라 양자 개발협력활동을 전개함.

-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협력활동의 규모는 크지 않음.

□ 개발 파트너십 특징

- 프로그램 vs 프로젝트 기반 재정지원

- 인도는 1959년 네팔과 부탄*을 상대로 프로그램 기반의 지원활동을 결정

* 네팔과 부탄은 인도 양자 개발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국가임.

- 인도는 1960~61년간 네팔 Second Plan을 지원하기 위해 1억 8천만 루피를 제공하는데 동의했으며, 1960년부터는 부탄에 매년 7천만 루피의 보조금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여 부탄정부로 하여금 체계적 시스템을 갖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삼각협력

- 1957년 인도는 네팔, 미국과 함께 3자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히말라야 지방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900마일 가량의 도로를 건설함.

- 1958년에는 네팔정부, 미국과 함께 삼자 전기통신 협정을 맺어 인도-네팔 간 통신시설을 지원하고 네팔의 효율적 국내 통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 또한 Colombo Plan*에 따라 캐나다에서 네팔로 보내는 1000톤의 밀의 운송비용에 대해 5만루피를 원조자금으로 제공함.

* Colombo Plan: 1950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영연방 외상회의에서 제창된 동남아시아 개발 원조계획으로 당초 영 연방 선진 4개국(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을 원조 공여국으로 하여 발족했으나 그 후 미국, 일본이 공여국으로 참가함. 수원국은 인도, 파키스탄 등 27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임.

○ NGO에 자금제공

- 1959~60년간 랑군* Rama Krishna 병원에 천만 루피의 증여를 제공하는 등 시민사회 및 단체를 지원함.

* Rangoon: 미얀마 수도 Yangon의 구칭

○ 경제 · 산업 역량 형성

- 1958년 인도는 부탄정부에 15만 루피를 제공하여 부탄 국내 도로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부탄에 오렌지 파쇄 공장 설립을 위해 22만 루피의 차관을 제공함.

- 또한 1959년 아프간의 카불과 칸다하르 공항에 항공 및 기상관련 시설을 세우고 관련 직원을 인도에서 파견했으며, 라디오 통신에 대한 인도-아프간 양자협정에 따라 아프간의 라디오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함.

□ 인도 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이슈

○ (예산관련) 외부 원조자금으로부터 독립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의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협력의 신용거래 경로(line of credit route)를 재확인할 것 제안

○ 인도 정부는 개도국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2007년부터 인도 국제개발협력 기관(IIDCA: Indi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의 설립을 계획하였음. 아직 IIDCA가 설립되지 않았지만 향후 인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전문가 사절단 연수 등의 기술협력, 자문활동을 통한 지원 및 재난극복,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점 이슈로 부각됨.

* 인도의 ITEC(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Programme) 프로그램 기술협력과 역량배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964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156개 개도국을 상대로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술지원활동을 수행함. 매년 6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250개 이상의 인도 기관 및 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음.

□ 정책적 이슈 및 제안

- 개발협력에 대한 responsibility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원조 효과성이지만 이는 각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
- 인도의 협력 프로젝트는 수원국으로부터 받은 사전 자문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이를 통해 수원국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아프리카 e-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수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함.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사례)
- 인도는 IBSA*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남남협력의 원조관계를 형성해 왔음. IBSA 기반 프로젝트는 UN 남남협력 담당 부서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으므로 각 회원국의 정치·외교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원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 IBSA: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Dialogue Forum으로 회원국 간 국제 삼각협력관계를 형성함. 각 국은 각각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며 농업, 무역, 문화 및 안보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음.
- 인도는 민간부문에서의 남남협력 활동증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공유하고자 함.
- (제안) 인도 대외개발협력의 효과성은 제도적, 정책적 제약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제약을 줄이려면 삼각협력,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제한된 가능성, 원조 프로젝트의 영향 평가과

정 부재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대외원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performance review 메커니즘의 부재는 정부 관계자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임. (그동안 정부는 원조 프로젝트를 더디게 진행하여 문제를 야기해 옴.)
- (제안) 외교부 아래 원조 관련부서를 재편성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이러한 행정적 개편은 부서 간 조화를 제고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중복을 감소·종식시킬 수 있음. (외교부 산하기구로 IIDCA를 두는 것을 계획)
- (제안) 인도의 원조활동은 중점분야가 부족하고 가시성이 낮으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시 되고 있음. 또한 전략적으로 수원국을 선택하는 대외정책이 필요함.

2. 중국의 對아프리카 원조: 정책발전, 특징 및 역할

□ 정책발전

① 제1기: 1956~1970년대 후반

- (동기)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원조활동을 시작하여 정치, 외교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얻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을 지원

* 중국의 원조 원칙 8항목

- 1964년 Zhou Enlai 중국 수상이 아프리카 방문 시 강조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음.

- 1) 균등과 상호이익 추구
- 2)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구속사항을 두거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음.
- 3) 무이자/낮은 이율로 차관 제공하며 상환의 시기는 연장 가능함.
- 4) 수원국으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워 독립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루게 하는 것을 원조의 목표로 삼고 있음.
- 5) 소규모 투자, 원조 프로젝트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높은 가시성)

- 6) 국제시장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장비 및 관련 자재를 제공할 것
- 7) 기술협력을 수행 시 최대한의 기술을 전수할 것
- 8) 중국 원조관련 전문가는 반드시 수원국의 전문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임.

② 제2기: 1970년대 후반~현재

- 원조의 목표는 상호 경제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4가지 원조 원칙이 대두(1983년)

- * 새로운 원조 원칙 4항목
- 1) 균등함과 상호이익 추구
 - 2) 실질적 결과에 중점을 둠.
 - 3) 다양한 형태 추구
 - 4) 공통된 progress 추구

- 다양한 형태의 원조활동을 추구함에 따라 증여(제1기 가장 주된 형식의 원조) 외에 투자, 합작기업, engineering contract business 등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경제, 무역관계가 증진됨.

○ 대외원조 개혁(1995년)

- Preferential Loan을 도입하여 주로 중국-로컬 합작기업에 적용, 중국의 의료, 전자제품 및 장비 등을 수원국에 완전한 형태로 제공함.
- * 2004년까지 약 100개의 Preferential Loan관련 프로젝트를 수행되었으며 1996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수단에서 석유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00년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을 계기로 중국의 對아프리카 원조활동이 더욱 확대됨. 그 이후 중국은 기술협력, 부채탕감, 인적자원개발,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파견, 인도주의적 원조에 주력함.

Beijing 2006 Summit 8 measures	2009 SHARM EL-SHEIKH, Egypt Ministerial Conference 8 measures
1) 2009년까지 지원액 배증 2) 50억 달러의 loan과 credit 제공	1) 기후변화 강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태양열,

<p>3) 개발펀드(50억 달러 규모) 설립하여 중국기업의 투자유도</p> <p>4) Africa Unity를 지원하기 위한 컨퍼런스 센터 설립</p> <p>5) 부채 탕감</p> <p>6) 아프리카 생산 물품에 대해 중국 시장 개방(190개→440개)</p> <p>7) 3~5개 무역·경제협력지역 설립</p> <p>8) 아프리카 전문가 연수 및 지방학교 설립, 농업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파견, 병원 및 말라리아 방지센터 설립, 아프리카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확대</p>	<p>bio-gas 등 100개의 clean energy 프로젝트를 추진</p> <p>2) 아프리카 대상, 과학·기술분야관련 100개의 joint demonstration 프로젝트 추진, 아프리카 전문가를 중국으로 초빙하여 과학관련 연구수행</p> <p>3) 아프리카의 자금역량 배양을 위해 100억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 아프리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의 special loan 제공, 2009년 만기되는 아프리카의 부채공제</p> <p>4) 아프리카 생산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함. 저개발 아프리카 국가의 제품을 상대로 비관세를 95%까지 확대할 계획</p> <p>5) 농업분야에서의 아프리카와의 협력 증진, 아프리카에 농업 기술 전시 센터 설립, 중국 농업관련 전문가 파견</p> <p>6) 의료·보건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의료장비 및 말라리아 관련 약품제공, 병원/말라리아 방지 센터 설립, 의료진 파견</p> <p>7)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 아프리카에 학교설립 및 교육관계자들 연수, 특히 중국은 2012년까지 중국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아프리카 학생의 수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연수사업도 증가하고 있음.</p> <p>8) 인적교류 확대 아프리카와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학문적으로 서로 지원</p>
---	---

□ 對아프리카 원조의 특징

- ① 정치와 연계되지 않는 원조 추구
- ② 다자협력 보다는 양자협력을 통한 원조 프로젝트 추진
 - 풍부한 양자협력 프로젝트의 경험

- 다자보다 양자협력이 효율적이라고 간주

③ 인프라건설 등 하드웨어적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원조의 역할 및 향후과제

- (역할) 8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부채 탕감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함.
- (과제) 중국이 추구하는 비조건부(no conditionality) 원조와 전통 공여국의 조건부(conditionality) 원조 간 조화를 모색
- (과제) 중국 원조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대외 원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임. 또한 원조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한국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사례: 베트남 사업 평가에서 도출한 개발협력 교훈과 과제

□ EDCF 베트남 사업 개요

- 1995년, 처음으로 베트남에 차관을 제공한 이래 EDCF의 협력활동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 1995~1999년 동안 개발협력활동은 주로 한국-베트남 간의 외교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상외교의 일부로 진행됨. 그 이후 5년 역시, ODA는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국한됨.
 - 2006년 초 EDCF는 베트남에 대한 CCSP(Country Cooperation Strategy and Program)를 도입하고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개발 아젠다에 초점을 맞추게 됨. CCSP를 통해 중기적 Rolling Plan을 개발하여 Social Economic Development Plan 등 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이로 인해 2006년 말 이후 EDCF의 Portfolio가 크게 발전함.

단위: Million USD

	1995-99	200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Commitment	128.4	55.0	19.5	26.2	243.7	228.1	287.0	295.1	1,283.0
(%)	(10.0)	(4.3)	(1.5)	(2.0)	(19.0)	(17.8)	(22.4)	(23.0)	(100.0)
Project	4	4	1	3	11	11	8	8	50

- 원조효과성 증대 및 EDCF 규모증가와 관련하여 공여국 간 조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시 됨. EDCF는 2007년 베트남 정부 및 다른 공여국과의 조화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베트남에서의 공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Six Banks Group*에 참여함.

* Six Bank Group: WB, ADB(아시아개발은행), AFD(프랑스), KfW(독일), JICA(일본 국제협력기구), EDCF

□ 운영 방향

- 기본적으로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에 따르며 원조 효과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국가 개발전략에 부합) EDCF는 베트남 정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주로 베트남 사회-경제 부문에 연관된 프로젝트를 추진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과 의료분야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
- 특히 교통 관련 협력활동은 베트남의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베트남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됨.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증가 적극 반영)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충분한 재정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EDCF는 막대한 규모의 loan facility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킴.
- Hanoi Haiphong Expressway, Vinh Tinh Bridge, GMS SCCP 및 Vam Cong Bridge 건설에 각각 1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함.

- (다른 공여국들과의 조화 추구) EDCF는 베트남에서의 ODA 활동 및 시스템을 능률화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특히 Six Banks Group을 통해 원조 효과성 포럼의 아젠다를 강화하고 원조 효과성 관련 하노이 Core Statement 이행의 필수요소를 제공받음.

□ 사업 평가

- 거시적 관점 및 프로젝트 수준에서 평가: 성공적인 결과 획득
 - Consultative Group Meeting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계획을 지원하였으며 3억 8900만 달러의 ODA pledge를 달성함.
- 프로젝트의 더딘 이행과 병목현상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
 - 프로젝트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commitment 보다 실제 지출, 투자되는 금액이 낮아지고 이러한 vicious circle이 자리를 잡게 됨. 이는 나아가 전반적으로 commitment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수원국의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 또한 프로젝트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운영 및 투자비용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총 이익이 감소하게 됨. 이에 따라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프로젝트 이행지연을 중요한 이슈로 간주함.
 - WB 연구결과에 따르면, 6개 은행 Portfolio에서 disbursement가 1% 증가하면 5억 달러의 투자가 증가하며,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최근 원조 공여국들의 개발협력 활동이 몇몇 지역에 몰림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됨.
 - 또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 형성과 관련, 프로젝트 운영에의 신탁 강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됨. 효율적 ODA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해 일관된 법적 틀이 마련되어 공공투자를 관리해야 하며, 정부의 승인절차를 능률화 하고, 프로젝트 운영

역량을 개발하며, 공공재의 조달·계약·운영비는 시장논리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교훈

- (원칙보다 운영에의 이슈에 초점) 협력대상국에서 세운 원조 원칙 및 대상국 정부가 제공하는 guidance가 실제로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보다는 운영에의 이슈에 중점을 두게 됨. 이 경우 협력 대상국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대상국의 country ownership을 강화하자는 파리선언의 취지가 무색해짐.
- 6 Bank는 이를 고려하여 ODA Management Framework을 강화, 프로젝트 준비 및 착수의 능률화, 이행시 병목현상 해소 등 보다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해 왔음.
- (공여국간 의견 조화) 증여를 제공하는 공여국은 수원국의 사회 전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관을 제공하는 공여국은 보다 더 기술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공여국간 기능과 중점을 두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름.
- 소규모 증여를 제공하는 공여국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여 그룹 간 운영관련 이슈에 대해 차이점을 나타냄.

□ 향후 과제

-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액션플랜 수립) Country ownership 형성을 위해 아크라 행동강령을 국가적 수준의 액션플랜 틀에 맞게 국한시켜야 할 것임. 실용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음.
- (국가적 네트워크에 개발 아젠다를 도입) 개발을 위한 효과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공여국 그룹은 현지에서의 개발관련 프로젝트 운영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협력대상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슈 관련 논의에 반영해야 할 것임.

4. 태국의 개발협력체계

□ 개발협력 정책

- 지식·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경제개발과 기술협력을 유도
- 태국 기관과 협력대상국 내 관련 기관 간 기술협력 증진 및 강화
- 태국 개발협력기관의 국제화 추진

- 개발협력의 목표
 - 개발도상국의 자생역량을 함양하여 빈곤감축을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움.
 - 지역, 소지역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경제발전을 북돋음.
 - 개발관련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교육과 연수를 통해 태국의 개발사례를 알리고 공유하여 태국이 개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것을 추구함.

* ODA 전략 Framework (2007-11년)

- 태국을 인근지역의 인적개발센터로서 강화시킴.
- 태국 개발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및 기관의 역량 고취
- sufficiency economy*
- 양자, 다자협력 적극추진
- 지역, 소지역간 협력 증진
- 협력 파트너십 확대
- 공공,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증진

* sufficiency economy: 태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고 과도한 해외투자, 기술, 시장 의존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깨닫게 됨. sufficiency economy는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부터 태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 왕이 발표한 경제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태국의 균형적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술협력 제공부문

- 농업 및 지역개발

- sufficiency economy에 대한 이론과 실제
- 전염병 등 공공보건 분야
-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개발
- 자연자원 개발 및 에너지 관련 분야
- 관광 촉진
- 인적자원개발 촉진

□ 태국 개발협력 체계

① 남남협력

- 태국은 1955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협력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신흥 공여국으로 간주됨. 기술협력 외에도 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캄보디아 등에 소규모 연화차관(Soft Loan)*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 연화차관(Soft Loan):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관을 제공(비상업적 목적)

- (남남협력 주력지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심으로 주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근접지역 국가들 및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post-conflict 국가를 대상으로 남남협력 활동을 수행함.
- (프로그램 종류) 양자프로그램, 국제연수코스(매년진행), 장기교육 프로그램, 개도국간 기술협력(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중국과 진행 중이며 인도, 말레이시아는 잠정계획 중), 기관연계프로그램, 제3국가 연수프로그램(TCTP: 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 자원봉사 프로그램(신생 프로그램)

국제 연수 프로그램			
	2003-07	2008	2009
양자	4815	1166	1279
국제연수	1824	613	758
TCDC	374	46	51
fellowship	506	107	165
파트너십/ 삼각협력	1796	434	596
TCTP	340	277	202
합계	9655	2643	3051

② 개발관련 남남협력 파트너십

- 태국은 다른 개도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개발협력활동에 드는 비용을 협력국과 분담함. (서로 동등한 기준적용)

③ 북-남 파트너십

- 일본, 호주,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등 전통공여국 및 UNDP, UNCEF, UNFPA, ADB, WB, ESCAP 등 국제기구와 개발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④ 지역·소구역 중심의 파트너십

- ACMECS, BIMSTEC, GMS, IMT-GT, ASEAN*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제협력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

* ACMECS: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BIMSTEC: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버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IMT-GT: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ASEAN: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태국 개발협력 원칙

- 각국의 전략, 정책, 중점분야를 반영하여 국가 Ownership을 지키며, 협력대상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함.

- 개발협력으로 인해 지원을 제공하고 받는 국가 모두 상호 보강의 효과를 얻어야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지원
- 개발사례 공유를 통해 정책자문을 하고 협력대상국의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며 협력국간 공동으로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형태 추구 (따라서 비용분담 방식을 취함.)

□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

- 기술전수의 병목현상, 역량배양에의 한계, 공공부문에만 치중된 개발협력사업, 협력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실제 이행하는데서 비롯된 기술적용의 부적합성 등이 문제시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새로운 Aid architecture가 수립되어야 하며, Value-chain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협력 접근법을 활용하며, 실제 협력활동의 결과를 평가해야 할 것임.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제고)
- 또한 일관된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협력프로그램에 대해 협력국과 동일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인력·자원·전문기술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등 협력대상국의 노력도 요구됨.
- 그동안 태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JICA의 프로젝트를 모방한 것처럼 너무 비슷하다는 평을 받아 옴. 국제개발협력 무대에서 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갖춰야 할 것임.

5.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

□ 개요

- 싱가포르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싱가포르는 그동안 170개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함. 현재까지 약 7만 5천명의 개도국 정부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았으며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연수코스, 워크숍, Study visit, 학사 장학제도로 구성됨.

- 콜롬보 플랜을 기반으로 시작

○ 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사회·경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며, 협력국과 서로 지식,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얻고자 함.

- 인적자원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싱가포르는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역량배양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싱가포르는 일본, 독일, UNDP로부터 HRD 기술을 전수받음.)

○ 주요 협력분야로는 무역·관광진흥, 경제개발, 환경 및 도시발전, 항공기술, 교육, 행정·거버넌스·법, 정보통신기술, 지상교통 및 항만, 보건, 재해극복이 있음.

□ 협력 프로그램의 종류

○ 싱가포르는 양자협력 및 제3국 연수 프로그램(TCTP: 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me)을 수행

- TCTP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KOICA, TAF, UNDP, JICA 등 17개국, 26개 국제기구 및 NGO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60개 이상의 연수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주력 프로젝트

- IAI 연수 센터: 새롭게 ASEAN에 가입한 국가들의 통합 가속화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설립함. 학습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연수 참가자들은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 연수과정에서 수원국은 개발을 위해 어느 분야의 지식을 얻을 것인지 능동적으로 결정해야 함.

- AMED 연수 센터: 카타르에 설립하여 아시아와 중동의 개발협력 증진을 모색함.

- IMF-싱가포르 지역 연수기관

- 재건설 프로젝트: 쓰나미 피해이후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작된 프

로젝트로 주로 스리랑카에 학교를 설립하고 물 배급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지원함.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의 건축기술을 전수하면서 스리랑카 현지 건축회사와 업무를 진행하여 스리랑카 건축회사가 싱가포르의 기술을 더욱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스리랑카는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됨.

□ 싱가포르 도시개발 경험공유 사례

- 싱가포르는 소규모 면적의 도시국가로 도시계획, 수도시설, 의료보건의 에너지 관리에 특화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도시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음.
- SCP(Singapore Cooperation Programme) 프로그램
 - 도시계획: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DARE(Decision, Actions, Results) 프로그램 수행
 - 수도시설: 물 부족 지역에서의 수자원 통합, 환경운영 정책 관련 프로그램 수행
 - 의료보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Dengue 관련 워크숍 개최
 - 에너지 관리: 도시·지방 개발계획과 운영 관련 프로그램 수행

□ SCP의 사례 및 향후과제

- SCP는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개발격차 감소 및 MDGs 달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자문 사업을 수행함. 싱가포르는 자문에 대한 체계화된 피드백과 평가 메커니즘이 있어 매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 50%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음. SCP는 싱가포르와 협력국간 지식공유 및 참여자간의 지식공유를 추구하며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함.
- SCP는 변화하는 지역적, 국제적 요소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협력국과의 win-win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것임.

- 싱가포르는 최대한 협력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추어 개발 협력활동을 수행함.
- 싱가포르는 인적자원개발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주력하여 개발협력을 하고자 하며, 직접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함. win-win 파트너십 형성 및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국제개발협력에 무대에서 각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분업 (division of labor)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농업발전에 대한 개발경험은 없지만 food-chain management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음. 따라서 협력국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6.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 Malaysia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남남협력에 대한 증언

□ 개요

- MTCP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말레이시아의 개발경험을 다른 개도국들과 공유하고자 함.
- 또한 공동의 자생력 제고를 기반으로 남남협력을 증진하고 말레이시아-개도국, 말레이시아-협력국 간 양자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Funding Modalities) 말레이시아 정부, 수원국 및 UNDP, JICA 등 제3의 주체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음. (비용분담의 형식)

□ 협력활동의 종류

- 단기연수 코스: 경영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 기술, 경제, 금융, 무역, 외교, 환경, 농업, 사회개발, 영어, 산업·기술 연수에 대해 다룸.

- 장기연수 코스: 말레이시아 공립대학교에서 매년 55개의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이 외에도 MTCP는 파키스탄 공무원 등을 상대로 Study Visit을 실시하고, 개도국 참가자에게 말레이시아 내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또한 협력대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함.
-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협력대상국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경우 logistics는 말레이시아 측에서 담당함.

□ 협력대상국 및 협력기관

- 협력대상국: ASEAN을 기본으로 하여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서아시아, 아프리카, CIS,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활동을 진행하고 계획함.
- 협력기관: 총 54개(26개 정부기관, 10개 법정기관, 18개 민간기관 혹은 NGO)의 연수기관과 협력

□ 성과

- MTCP 참여국과 협력국 간의 관계가 증진되었으며, 남남협력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였음.
- 참여국 국민 간 교류가 증대되고 무역,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그동안 130개국으로부터 2만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참가자들 간 교류 및 모임의 수가 상당해짐.

□ 향후과제

- 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

- 최적의 실행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고 미스매치를 최소화해야 함.
- 후속 연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참가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 삼각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는 등 ICT를 이용한 협력 활동을 개발해야 함.

2 Perspectives on Aid Architecture

1. 파리선언에 대한 숙고 및 아시아 접근법과의 연관성

*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2005년 파리에서 열린 HLF3(제3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포럼)에서 100개 이상의 조인국(공여국,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포함)들이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함.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행공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함.

-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원조전략의 일치(Alignment)
- 공여국간 원조전략의 조화(Harmonization)
- 원조 성과관리(Management for Results)
- 상호 책임성의 강화(Mutual Accountability)

□ 아시아 접근법이란 무엇인가?

- 개발협력에 대해 아시아 각 국가는 모두 개별의 역사, 개발경험, 상황,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립된 아시아 모델은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은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음.
 - 강한 국가(정부)에 대한 믿음
 -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면 빈곤이 감축될 것이라고 간주
 -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
 - 자생력 증진을 위해 차관 제공
 - 경제 인프라 분야에 구속성 원조 제공하여 서로간의 무역을 증진함.

- 공여국이면서 동시에 수원국
 - 개발협력 파트너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자 함.
 - 역량배양 및 삼각협력을 중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함.
- 반면 아시아국가들 간 개발협력에 대한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주로 원조 및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 및 각 국가들의 체제 및 정책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제체제 아래에서 중국만의 특이한 정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발경험을 갖고 있음.
 - 원조 담당 기관의 유무(KOICA, JICA, TICA 등), CSO의 관여, 거버넌스 이슈 등 국가마다 각기 다른 원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 아시아 협력국의 차별성
 - 아시아 공여국들은 원조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정책과 실행에 있어서 국가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함. 이는 국가를 개발시키면 국민의 삶의 질도 따라서 제고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
 - 아시아 공여국들은 주로 경제 협력관계 및 상호 이익에 대한 구속성 원조를 제공하는데 이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 독립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함을 반영하는 것임.

□ 파리선언에 대한 재고

- 파리선언은 원조제공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공여국에서의 delivery 및 수원국에서의 utilization의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음. 효율성과 효과성을 핵심 요소로 여기는 반면, 공여국 간 파트너십 개발은 중요시 하지 않음.
 - 원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고한 목표를 향해 뚜렷한 지표와 timetable을 세우고 그 실행 과정을 감독하고 평가함.
 - 아시아 공여국은 국가의 개발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어 distribution 상의 문제점에 직면하는 등 체계화된 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한계

를 갖고 있음. 즉, 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지방정부 및 국민에게까지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과거의 경험, 특히 국제 전통 공여국(North)의 개발경험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북-남 관계의 경험을 토대로 함.
 - 북-남 관계는 현재 아시아 공여국이 맺고 있는 남-남 협력관계 및 지역기반의 협력관계와는 다름.
 - 전통 공여국이 제시하는 개발경험은 거의 북측 선진국가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신흥 경제성장국의 개발경험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원조는 공여국 중심의 접근법에 의거하여 제공되며 공여국-수원국 간 국력에 따라 협력관계에서 수원국의 리더십은 약화됨.
 - 파리선언의 원칙 중 수원국의 ownership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원조전략과 일치시킨다는 항목에 부합하지 않음.
 - 반면 아시아 공여국은 수요 중심의 접근법을 적용, 수원국이 협력관계에서 ownership을 갖는 것을 추구함. 이 경우 수원국은 개발을 위해 원조 및 협력을 받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음.
- 파리선언은 국가 우선주의 접근법을 갖고 국가의 개발전략 및 원조 프로그램 이행 기구에 중점적 노력을 기울임.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신흥·전통 공여국 모두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신흥공여국은 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체계화된 구조 및 기관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통 공여국은 원조 제공 관련 대안으로 비국가적 채널을 마련하지 못했음.

□ 파리 선언 이후: 신흥국을 위한 개발 및 원조

- 과거의 경험에 따라 파리선언은 원조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추정에 의거하여 고안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원조 활동 평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

- 원조와 원조 프로세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조는 개발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는 것 보다는 원조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원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체계화하는 것 보다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간주함.
- 개발에 대해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단순히 원조를 제공해 주는 것 보다 개도국/빈국으로 하여금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원조'를 넘어 '개발'에 대해 숙고할 것)
- 따라서 개발효과성, 무역원조 등 '원조'를 넘어 '개발'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임.

□ 향후 과제

- 국가 우선주의 접근법에 국한되지 않고 원조를 제공하는 채널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실제 국민들에게 원조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확한 목표, 이행수단, 감독 및 평가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아크라 행동강령(2008)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CSO와 더욱 많은 연계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제공 활동 및 양상과, 협력대상국들의 반응에 대해 조사, 분석해야 함.
- 전통 공여국-아시아 공여국-협력대상국(수원국) 간 정기적 dialogue를 개최, 이를 통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임.
- 변화하는 글로벌 정세에 맞는 원조·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함.

2. 개발 패러다임

□ 개발에 대한 개념적 Framework

① 개발의 정의

○ '자유'로서의 개발

- 건강, 사회참여, 자존 등 한 개인의 역량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와도 같은 것임. 빈곤은 기본적인 역량이 박탈된 상태로 개발은 이러한 박탈을 채워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Amartya Sen).

○ 새로운 개발전략 및 포괄적 개발 Framework

- 개발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로 이뤄낼 수 있으며 GDP 증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과 교육을 갖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 즉, GDP의 증가는 빈곤의 감축을 수반해야 함(Joseph Stiglitz).

○ 인간개발과 경제성장 간 선순환

- 선순환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음. 경제성장으로부터 인간개발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보건과 교육에 대한 공공비 지출이 중요한 중재변수로 작용하고, 반대로 인간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투자와 소득분배가 중요 변수로 작용함(Gustav Ranis 외).

② 3가지 외부효과

○ 개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외부효과, 즉 혁신, 조율, 정부 외부효과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는 비정부 기관 및 시장과의 관계에서, 혁신(innovation)과 생산활동의 조율(coordination)을 증진시켜야 하고, 부패, 무능함 등 부정적인 정부의 외부효과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동 기반의 보상시스템을 도입, 적용해야 함.

③ 3가지 돌파구 (산업혁명을 통해 얻게 된 근대성장)

- 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이 확대되고 그로인해 생산성이 증대됨.
- ‘보이지 않는 손’ 혹은 ‘보이는 손’에 따라 시장과 계층이 확대되어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생산적 활동의 조정이 가능해짐.
- 실력중시주의(meritocracy)가 부상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가 등장함.

④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

- Framework 접근법 (‘자질’에 입각한 시각, 자유화)

- 문화적 가치, 제도화된 기관, 투자환경 등 적절한 자질을 갖춘 경제는 성장한다는 시각으로 국가는 제도화된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그 후에는 개개인들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활동하도록 해야 함.

- Ingredients 접근법 (‘노력’에 입각한 시각, 역량배양)

- 경제성장이 최상의 제도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님. 네트워크를 고안하고, 제약을 파악하여 경감시키는 노력을 통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국가는 성장을 위해 경제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자체 역량을 개발해야 함.
- 성과에 기초한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성공적인 실행사례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혁신, 조율, 정부 외부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어떤 것인지 가정함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

⑤ 워싱턴 컨센서스의 붕괴

-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워싱턴 컨센서스에 회의적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증가하였고 경제의 제도적 혁신에 각 국가의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받음.

-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국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친 반면, 중국과 인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룸.
- 새로운 컨센서스의 형성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노력 기반 접근법에 의거한 아시아의 개발경험에 주목하며, UN Millenium 프로젝트에 새로운 원동력을 가해야 할 것임.

□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 좋은 거버넌스 이슈

- 좋은 거버넌스는 좋은 Causal Chain을 형성하는 것으로, 부패가 없고 지적재산에 대한 강한 보호와 법적 규제를 지니고 있으며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예측가능성을 지닌 번영을 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거버넌스의 역량에 따라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면 성공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음. 즉 좋은 거버넌스에 의해 경제성장과 선진사회 모두를 얻게 됨. 단,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에 기초하여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양한 제도적 형태가 가능함.

○ MDGs: 성과와 한계

- MDGs는 국제 리더 수준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빈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하였음. 수단 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 간결성과 측정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이론을 정립하지는 않았음. 또한 지역/국가 수준의 목표 보다는 전 세계적 수준으로 Goal을 지정함.
- MDGs는 주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중점을 두었으며 빈곤의 원인 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음.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인 접근법보다는 지표 달성을 위한 수직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저소득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자립적(자생적)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개발협력에 대한 도전과제

-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원조 환경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원조활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협력도 증가함. 반면 DAC 국가의 핵심 원조사업은 전체 ODA 중 그 비중이 줄어듦.
 - 중국, 인도 등 과거의 저소득국이 중진국이 됨에 따라 2008년 현재 전세계 빈곤층의 72%가 중진국에 거주함.
-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성공적 경제성장예의 공통적 요소: 1)세계 경제의 발전, 2)거시 경제적 안정, 3)높은 저축·투자 비율, 4)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5)역량 있고 신뢰가 가는 정부
-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체 역량배양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음.
 - 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잃지 않아야 하고 부가가치 창출, 위기관리 역량을 확대해야 함. 또한 혁신, 조화, 정부의 외부 효과를 통제하는 역량도 필요하며, 재정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고 유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적은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함.

□ 2015년 이후의 MDGs 재편 방안

- 개발은 '자유'라는 시각을 적용하고, 지역역량 확대와 관련하여 자생적 개발을 기반으로 한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함.
- 현재까지의 MDGs Goals은 기본적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선순환 형성을 포함해야 할 것임.
- MDGs의 기본적 Goals, Targets, Indicators의 구조는 유지함.

(Goals의 개수는 10개 내외, Targets의 개수는 20개 내외 유지)

- 실현가능한 Target 설정을 위해 트렌드를 분석, 추정해야 함.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중국, 인도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MDGs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님. MDGs의 Goal과 Target을 보다 실제로 필요한 요소와 결부시켜야 할 것임.
- 글로벌 Target 외에도 지역적, 국가적 이슈를 반영한 target을 설정해야 함.
- 적합한 Indicator를 적용하여 MDGs 이행을 평가해야 함.

□ 2015년 이후의 MDGs: 제안

- 새로운 Goals
 - 거버넌스 관련, 기본적 프로세스 자유 설정
 - 포괄적 성장과 평등 (빈민 거주자의 생활개선, 재정접근성 확대)
 - 인프라 설립 (ICT 지표마련, 전기, 교통시설 관련)
 - 산업, 무역 개발
- 기존 Goal의 통합: 기본적 보건관련
 - 아동사망
 - 모성보건
 - 질병
 - 안전한 식수의 지속적 제공 및 기본적 위생시설 제공
- 강화된 Goal: 교육관련
 - 초등교육 (교육의 질과 완성도에 주력)
 - 기술교육 및 직업연수

3. 협력 양상에서의 Aid Architecture 건설, 그 도전과제

- DAC 회원국-비회원국간 원조 양상의 차이점: Budget support 및 Project support

- DAC 회원국과는 다르게 DAC 비회원 공여국은 수원국의 재정 시스템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며, 원조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금전적 보고를 하지 않음.
- 중국의 개발협력은 오직 프로젝트 기반으로만 이루어지는데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담당기관 및 전문가들은 모두 철수하게 됨.

* 중국 원조 프로젝트의 3종류(주로 인프라 건설과 연관)

- 1) Turn Key Project: 공여국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품(요소)을 제공함.
- 2) 재료 일부분을 제공받고, 일부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 3) 인력개발연수 프로젝트 및 의료팀 혹은 자원봉사자 파견 프로젝트

-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그로부터 노동계약 및 중국제품 조달 등 많은 이익을 얻음.
- 실제로 많은 수원국이 예산 지원(Budget support) 형식의 원조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금/자원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공여국의 재정지원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이 역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는 상충되는 상황을 초래함.
- 수원국의 정책결정에 공여국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음.
- 반면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은 구속성 원조의 특성과 투명성 결여 측면에서 비판을 받음.

□ 차관제공과 외채위기간의 관계

-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은 대부분 수원국이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임.
- 앙골라, 콩고, 나이지리아, 수단과 같이 자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상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양허성 차관을 적게 제공하는 반면, 토고, 말리, 르완다 등 빈국의 경우 증여 및 무이자 차관을 제공함.
- 아프리카 지역의 외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원조 및 차관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므로 원조 및 차관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발전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외채상환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함.
- 개도국이 자생력을 키워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함.
- 역량배양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거나 남남협력/남-북-남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역량배양 분야에 해당하는 보건, 교육 부문에 대한 원조는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의 양상이 서로 비슷함.
- 르완다에 대한 중국의 의료팀 파견 활동은 독일의 의료 전문가 파견활동과 비슷함.
- 보건, 교육, 농업 등 역량배양 분야에 대한 원조는 전통과 신흥 공여국 간 비슷한 양상을 갖고 서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 남-남, 북-남, 남-북-남 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간주함.
-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보건과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임. 미국과 중국이 서로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에 대한 연수활동을 수행하거나,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교사들에게 연수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4. 개발을 위한 원조사용: 한국의 사례연구

- 한국은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국가임.
- 한국 전쟁이 끝나던 1953년, 한국 일인당 국민 소득은 약 65불이었으나, 1996년 OECD 회원국으로의 가입을 거쳐, 현재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약 20500불에 육박하게 됨.
-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 원조가 수원국의 자생력 함양을 방해하고

그들의 독립·개혁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과에 기초한 원조자금(자원)을 제공하여 국민들 간 경쟁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었음.

- (밀가루 제공) 사방사업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일당으로 1.6킬로그램의 밀가루를 제공하였는데 2,100만 명의 국민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또한 관개사업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1.6킬로그램(여자와 노인은 0.8킬로그램)의 밀가루를 제공한 결과 1960~80년간 15만개의 관개시설이 건설됨.

□ 미국과 UN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활용과 결과

-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은 불황, 극심한 인플레이션, 전쟁을 겪으며 빈곤에 빠짐.
- 미국으로부터 받은 130억불 가량의 원조는 대부분 증여였으며 한국의 장·단기적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됨.
- 해방 후 및 전쟁기간 동안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받았으며 인프라(교통 및 에너지) 건설을 위한 자본금이 증가됨.
- 미국과 UN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형태를 보면 시설을 제공받기 보다는(19%) 원재료/원자재를 제공받음(81%).
- 1951~59년간 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로부터 받은 원조 중 식량 및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9.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2.2%로 제조업 분야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
-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는 조건부 원조의 특성을 보여줌.
-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협정을 통해 원조가 활용되는 용도를 지정하는데 개입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원조를 받는 대가로 미국이 정한 거시경제목표(가격안정, 긴축재정, 공정 환율)에 부합하도록 요구함. 또한 중앙은행에 Counterpart Fund를 설립하여 원조자금이 오용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 미네소타 프로젝트: 역량배양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1954~61

년, 서울대학교)

- 226명의 서울대 교수진(의학, 엔지니어링, 농업분야)이 미네소타에서 연수를 받았으며 59명의 미국 전문가가 서울대학교에 파견되어 기술협력을 제공함.
- 약 1000만불의 자금과 최상위 교육원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결과 의학교육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진료에 대한 지불 역량이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적었음. 이에 따라 의학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brain drain 현상이 나타남. 게다가 당시 미국이 자질 있는 의사들에게 유리한 이민정책을 제시하여 brain drain이 더욱 심화됨.

○ UNKRA의 NMC 프로젝트

- 1958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UNKRA는 국립메디컬센터(NMC)를 설립함.
- NMC 프로젝트는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설립 이후 10년간 공여국으로부터 파견된 367명의 의료진으로 메디컬 센터를 운영함.
- 1960년 메디컬 센터는 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 해외 의료진이 돌아가고 난 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점차 낮아짐. 의료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지 의료 시설만이 남게 됨.

○ (평가) 미국과 UN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활용하여 한국은 전쟁 후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인프라 건설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음. 또한 공여국은 철도, 에너지, 교육, 의료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여 한국의 전문가 양성을 돕고 역량배양을 위한 시설을 제공함.

○ (평가) 반면, 미국과 UN으로부터 받은 원조로 인해 한국정부가 원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농촌발전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인 영향도 있음.

□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원조의 활용과 결과

- 한국은 전쟁 후 낮은 저축율과 적은 투자로 인해 지속 성장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기 힘들었고 해외로부터 차관과 원조를 받는 것도 점점 어려워짐.
 - 외자를 받아 이를 개발전략 이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고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원조의 형태로 받기로 함.
-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POSCO 프로젝트 수행 및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의 일부로 활용됨.
 - 당시 서구권 공여국과 WB는 POSCO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관을 제공해 주지 않았음.

* 일본의 원조정책 목표

-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더하기 위해 수출을 증진하고,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며, 수원국에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환경을 조성함.
(일본의 원조는 수출진흥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함.
- ODA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안정시킴으로써 일본의 경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함.
- 서구 수원국에 일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줌.
- 지역적, 국제적 무대에서 일본의 입지를 세우고 영향력을 강화시킴.

-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그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청구권 자금의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함.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 청구권 자금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함.
- 한국 이외에 일본의 청구권 자금 원조를 받은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미얀마), 베트남으로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많은

양의 원조를 받음. 수원국 대부분은 청구권 자금 원조를 댐, 도로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함.

-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 및 베트남 참전으로 한-미-일간 삼자무역체계가 형성됨.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수입하여 만든 제조업 생산품을 미국에 수출함.

□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 ODA를 이행하기 전에 사회, 정치,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수원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원조에 대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
- 공여-수원국 간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
-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저개발국을 지원할 때는 차관보다는 증여를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공여국이 원조의 활용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개도국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특히 개도국 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향후 공여국이 원조 프로젝트를 개도국 정부에 이양할 때 특히 중요시 됨.

③ Addressing Common Assumptions or Critiques of Asian Donors

1. 국제개발협력: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

□ 국제원조 동향

- 그동안 국제원조는 불안정하고 질이 높지 않으며 한정된 수준의

개선을 거듭해 왔다는 평을 받음. 실제로 1990년대에는 수원국에 제공되는 원조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원조의 형태를 보면 채무경감, 서비스 제공 등이 많은데 이에 따라 수원국으로의 자금 흐름은 감소함.

-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자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국민들이 원조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음. 그동안 G7,8 국가에서 아프리카에 제공한 자금보다 북유럽 국가에서 제공한 자금이 더 많음.
- 그동안의 ODA는 MDGs 달성을 위한 것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주력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BRICs의 성장으로 남남협력에 대두되면서 국제 개발협력 무대에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함.

□ 개발을 위한 재정 관련이슈

- 세금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의 역량으로 정부에서 세금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여 원조에 사용될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무역 자유화는 빈국에 개발자원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이에 따라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무역기구를 추진함.
- 국가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외적으로 부채가 많으면 국민에게 가해지는 세금의 부담도 증가함. 예를 들어 부채가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고려해야 함.

□ 무역원조 관련이슈

- 국제 무역활동에 따라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서 불이익을 받는 국가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무역원조를 국가 내부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로 국제 무역으로 인해 capacity를 잃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무역원조에서 capacity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그동안 이를 간과함.

- 현재 저개발국에 대한 duty free, quota free 비율이 97%인데 나머지 3%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DA

- 그동안 원조가 수원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논의가 많았음. 그러나 원조 중 지정학적 동기로 제공되는 원조를 제외할 경우 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등에 제공되는 지정학적 원조(geopolitical aid)를 제외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원조(developmental aid)에 초점을 맞춰 실증 분석(Reddy and Minoiu 2006; 2009)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최대화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ODA 시스템을 정립해야 함.
- 최근 수원국에 대한 재정지원 원조가 감소하는 추세로 개도국에서의 자금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여국간 논의가 필요함.
- 생산부문에 원조를 제공하여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welfare colonialism이라는 비판 방지)

□ 국제경제 구조개혁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이 주목을 받고, Bretton Woods 체제에서 발전된 국제경제 기구의 거버넌스 개혁이 요구됨.
 - 주로 미국,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quota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국가에 평등하게 quota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G20은 세계경제의 강하고 균형적인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는 저개발국과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 균형을 강조한 개발 친화 형태의 원조를 추구하며 국제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더 많은 국가의 경제이슈를 다루고자 함. G20이 G7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임.

* G20 개발 Pillar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 민간투자과 고용창출
- 인적자원 개발
- 무역
- 금융소외계층 포용
- 복원력(resilience)을 갖춘 경제성장
- 식량안보
- 국내 자원조달
- G20 개발경험 공유

- ADB 등 지역개발은행을 활성화하여 경제위기에 직면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슈

- (기후변화) 교토 protocol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기술발전과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 고려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함께 수반될 것임.
- (식량안보) 2007~8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음식가격도 상승함. 세계 빈곤계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기아 비율관련 수치는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냄. 과거 Green Revolution 및 식량제공을 위한 공공 재정지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원의 활용)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국제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적었음.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2. 아시아 개발협력 접근법에 대한 시각

□ 아시아 접근법

- 세계적으로 약 23개의 DAC 비회원 공여국이 있으며 전 세계의 1/4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원조를 제공함.
 - 아시아 공여국 중 한국과 일본은 순수 공여국으로 DAC에 가입되어있고, 중국, 인도, ASEAN 국가는 공여국이면서 동시에 수원국으로 DAC 회원이 아님.
- 아시아의 원조제공 접근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아시아 모델은 없지만 서로 비슷한 특징을 나타냄.
 - 국가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으며, 산업화·경제성장을 통해서 빈곤을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외원조를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간주함.
 - 차관제공의 비중이 높으며 경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로 구축성 원조를 제공함. 협력국간 기술·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며 인적자원을 교류함.
- 아시아 개발협력 접근법은 아시아 공여국의 문화 및 개발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불교, 도교 등의 문화를 서로 공유해 왔으며, 근대화를 통한 경제개발의 경험을 갖고 있음. 또한 수원국으로서 대외원조를 제공받은 경험을 갖고 있음.

□ 아시아 공여국에 대한 전통공여국의 시각

- 전통 공여국은 대체로 아시아의 개발협력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음.
 - 아시아 공여국의 개발협력 활동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MDGs, 파리선언 등 기존 원조 architecture에 맞지 않으며, 국제 표준 및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또한 자원외교 등 원조를 국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함.

* More Aid: 0.7%, Better Aid: 비구속성 원조, 증여(Grants) 추구

* 0.7% Target: 부유국 GNP의 0.7%를 ODA로 제공할겠다는 약속

□ 비판에 대한 아시아 공여국의 시각

-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는 대외원조의 잠재적 요소로 DAC 전통 공여국도 아시아 공여국과 다르지 않음.
- DAC 회원국도 아직까지 0.7% Target을 이행한 적이 없으며 비구속성 원조와 증여도 공여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공되고 있음.
- 또한 Dead Aid(Dambisa Moyo) 등 이미 전통 공여국의 원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통과 아시아 공여국간 조화

- 전통 공여국이 세운 기본적인 원조의 틀에 신흥(아시아) 공여국의 접근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남남협력에 대한 dialogue를 통해 아시아 공여국간 조화된 의견을 도출(아시아 규범 및 표준 설립)한 후 전통 공여국과 이를 공유하여 기존의 주된 원조 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OECD DAC-중국 포럼, G20 개발포럼 등 DAC 회원국과 아시아 공여국간 포럼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래를 향한 아시아의 관점

- 전 세계 ODA가 부유국 GNP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ODA 자원은 한정되어있음.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활용하여 하며 MDGs 이후의 agenda 설정이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제1, 2, 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는 원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주된 이슈였지만, 이제는 전달 뿐 아니라 원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함. 따라서 더욱 정확한 target이 요구되며 생산성 기반의 target을 수립해야 함.
 - 1950~60년대: 경제성장
 - 1970년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 1980~90년대: 구조조정
- 2000년대: (MDGs)빈곤감축

- 또한 모든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반영하여 실제로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 활동을 수행해야 함.

4] Lessons and Recommendations from Asian Approaches

1. Bogota 워크숍(남남협력) 및 Bali 회의(삼각협력)에서 얻은 교훈

□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 TT-SSC는 중소득국, 전통 공여국, 시민사회, 학계 및 지역·다자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DAC의 WP-EFF(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가 주최기관임. 900명 이상의 회원이 TT-SSC에 참여하며 콜롬비아와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음.
- TT-SSC는 ADBI(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NEPAD(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 지역 플랫폼과 WBI(World Bank Institute)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UN DCF(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OECD DAC(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LenCD(Learning Network on Capacity Development)/CD Alliance, G20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음.
- TT-SSC는 아크라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OECD DAC의 WP-EFF에서 신흥국 주도 플랫폼(southern-led platform)으로서 글로벌 개발정책관련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대변함.

* 아크라 행동강령 주요 이슈

- 남남협력사례에 원조효과성 원칙 적용
- 남남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조 효과성 강화
- 북남·남남협력간 보완적 측면 발견

- TT-SSC의 6개 주요분야
 -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해 주인의식과 상호이해 추구

- 협력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결과평가 수행
- 지식공유 및 지역사업 추진에 집중하여 간과될 수 있는 기후변화, 빈곤감축과 같은 글로벌 개발과제에 주목
- 효율적 남남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적 인센티브를 창조
- 삼각협력은 남남협력과 북남협력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야 할 것임.
- 지역적, 글로벌 메커니즘에 입각한 국가역량배양 및 조화를 통해 지식공유의 일회성과 무작위성을 극복

○ 최근 업적

- (Bogota Statement) 보고타 HLE(High Level Event) 결과로 상호 학습을 통해 남남협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을 약속함.
- (남남협력과 원조원칙 간 시너지 도출방법 모색) 남남협력 사례 110건으로부터 종합적 이슈를 도출하여, 원조 효과성 원칙을 적용할 방법과 이를 강화하고 이행할 방법을 모색함.
- 각 지역 정책실무자로부터 남남협력 및 원조효과성제고에 대한 110개 사례를 수집, 분류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정리함.

○ 2010-2011 과제

- Bogota Statement 관련, 정책과 실무를 연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련하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
- (work stream 3) 사례 연구 및 분석 심화, 실무자와의 커뮤니티 형성, 정책자문 실시
- 지역 플랫폼 및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신흥국 주도의 프로세스를 지지함.

□ 수평적 삼각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2011 발리 지역 워크숍)

- 개발도상국과 전통 공여국간의 삼각협력이 국제개발의 한 양상으로 점점 주목받기 시작함.
- 대부분의 협력 프로젝트는 무작위적이고 고립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정보가 제한되고 先개발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방해되며 내적 역량발전이 저해되고 상당한 개발협력 거래비용이 발생됨.

- 삼각협력은 선진공여국-협력제공국-수원국 간 수평적 파트너십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win-win-win을 목표로 하며, 남남협력과 북남협력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함.
- 삼각협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사례와 교훈을 수집해야 하며 수원국에 先개발사례를 적용할 때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함.
- 성공적 남남협력을 위해 지역적 근접성은 필수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과거 이행제도의 혁신을 위해 유연성을 키우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등의 역량을 개발해야 함.
- 성공적 결과생산을 위해 메커니즘과 운영구조를 고착화해야 함.
- TT-SSC 등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에 대한 교훈을 얻고 이 플랫폼을 개발경험 전파에 활용해야 함.
- 초기단계에서 체계화된 계획을 수립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치적 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으며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음.
- ICT 기술을 이용하는 등 지식공유 및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조성하고 개발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부산 HLF4의 Commitment 제안

- 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법 적용
 - 협력국간 상호이익과 평등, 신뢰를 기초로 한 수평적 파트너십 형성
 - 수평적 파트너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indicator와 criteria를 고안
- 지식공유를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개발과제에 대해 숙고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를 위해 개도국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함.
- 삼각협력 및 개발 수요-공급 매칭 메커니즘 개발을 통해 남남협력과 ODA간 연계를 혁신적으로 강화

5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 약 150개국 장관, 양자·다자기관 대표, 개도국 정부, CSO, 국회의원, 지방정부, 재단, 민간부문, 학계 관련자 등 약 2000명 참여
- 포럼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파리선언 이후의 프로세스를 검토(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강령의 commitment 이행 평가)하며 좋은 실행사례를 강조하고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함.
- 포럼 둘째 날에는 새로운 개발과제를 주제로 개발효과성이라는 큰 문맥에서 원조의 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 또한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새로운 협력 파트너에 대해 논의함.
- 셋째 날에는 Busan Outcome Document를 도출, 합의하여 미래 과제에 대해 논의함.
- (Busan Outcome Document) 2011년 7월부터 주요 evidence에 대한 논의 시작하여 7월에 첫 번째 draft를 작성한 후 10월에 두 번째 draft를 작성함. 현재까지 제출된 89개의 proposal 중 9월까지 결론이 도출된 proposal에 대해서는 HLF4에서 다루지 않음. 부산 회의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임.
- (Partner Country Priorities) 예측 가능한 원조, 국가 시스템의 활용, 원조제공에 따른 정책적 조건 종식, 국가주도 능력개발, 상호 이해, 거래비용 절감
- (Findings based on Evidence)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의 commitment를 이행하는데 따른 진행사항 및 도전과제에 대한 evidence 및 향후 우선과제가 HLF4 공식 document에 포함될 예정으로 이는 정치가, 개발협력 전문가 및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함.

* Milestones on the Road to Busan

2000	2002	2003	2005	2008	2010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MDG8	The Monterrey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 MDGs 달성을 위한 자금 제고에 컨센서스 설정	High Level Forum on Harmonisation (HLF1:로마) - 원조 수원국을 위한 거래비용 절감에 공여국 동의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2: 파리) - 파리선언, 원조의 질 개선을 위해 감독기능 강화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3: 아크라) - 개도국, 신흥국, 선진공여국, 시민사회 등 아크라 행동 강령에 합의	Engaging all development actors - Bogota Statement, 남남협력국가간 지식공유와 상호학습 심화 - Dili Declaration, 국가주도 peacebuilding, statebuilding - Istanbul Principles, 개발 actor로 CSO 강조

* HLF4 Agenda

	Day 1: Progress Since Paris	Day 2: New Development Challenges	Day 3: Future Actions
Morning Sessions	Opening Plenary	Plenary 2: "Looking Forward: How can aid address emerging development challenges?"	Political Debate 3: "What actions to take towards 2015?"
	Plenary 1: "Progress Since Paris: What lessons have we learned?" <i>Review evidence from the PD Monitoring & Evaluation</i>		
	Interactive Sessions to Inform Political Debate 1	Interactive Sessions to Inform Political Debate 2	
Afternoon Sessions	Political Debate 1: "Unfinished business: What we still need to do"	Political Debate 2: "Making development effective: What can aid do to leverage progress on development?"	Closing Plenary Endorsement of HLF-4 Outcome Document
On-going	Thematic Events (showcasing) Negotiation of Outcome Document (as required)		

* HLF4 Menu of Options

Core Aid Effectiveness Issues / Day 1	Broa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Issues / Day 2	Others
1. Ownership / Domestic Accountability / Governance	1. Country Case Stories	1. Capacity Development
CSO's enabling environment Inclusive ownership & Parliamentarians' role Rights based approaches Financial governance (anti-corruption, domestic taxation)	Focus countries Haiti, Iraq, INCAF (South Sudan, ...)	
2. Alignment / Use of Country Systems	2. Sector stories	2. Exit from Aid
PFM Procurement - Untying <i>Risk management</i>	Health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atistics	
3. Harmonisation	3. Diversification of providers	3. Global aid Governance
Aid architecture – multilateral proliferation, global funds Fragmentation, DoL Budget support and PBA <i>From "pilots" to BS : "scaling up" aid projects</i>	South-South Cooperation Private sector <i>CSOs (as providers)</i> Decentralised cooperation <i>Foundations</i>	
4. Predictability / Transparency	4.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tools	4. Media
Transparency Predictability Conditionality	<i>Innovative financing</i> <i>Non-ODA flows from DAC donors</i>	
5. Results / Value for Money / Mutual Accountability	5. Differentiation of recipients	
Mutual accountability at country level - UNDCF How are results measured? Results management	Fragile states - Dili Declaration – Humanitarian aid Aid to MIC, differences among regions	
6. Future aid quality framework	6. Beyond Aid / Embedding aid / Aid as a catalyst	
	Aid for Trade	
	7. Aid and Global Issues	
	Climate change	

[회의 사진]



※ 남남협력 관련 주요 이슈

- ① 아시아 공여국 대부분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 인프라 건설 분야에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
- ② 개도국의 역량배양이 중요
- ③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향평가, value chain, 프로그램 중복의 문제가 논의됨.
- ④ 지역협력, 삼각협력 등의 개발협력에서 공여국들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
- ⑤ 개발협력이 국가-국가를 기본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역량이 협력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침.
- ⑥ 개발목표 실현을 위해 좋은 거버넌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⑦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⑧ 향후에는 개발협력사업 관련, CSO와의 연계사업을 증가해야 함.
- ⑨ 개발협력 프로그램 진행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함.
- ⑩ 수원국의 역량배양을 위해 수원국의 수요와 부합된 원조의 목표를 세워야 함.
- ⑪ 개도국에 개발사례 및 교훈을 전할 때는 정직하고 정확한 사례를 전달해야 함.
- ⑫ 초청연수를 통해 수원국의 인적자원개발에 도움을 주고 심도 있는 역량배양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참고: 중국 對농촌 원조로부터 얻은 개발협력의 교훈

-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 공여국의 개발협력전략 주도하에 실시한 원조 프로젝트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함.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파악한 후 그것을 반영한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
- (역량배양의 중요성) 중국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저개발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관련, 베이징이 한 지역을 선정하 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capacity를 잘못 파악한 채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비롯된 문제였음. 해당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지역개발을 위해 먼저 역량배양부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됨.
- (수원국의 거버넌스 이슈) 개도국 안보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협력 대상국 local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성공적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반대하여 문제에 봉착한 경우가 있었음. 수원국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것임.
- (남남협력의 장점)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가 최근 개발경험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신흥국의 경우 서로 경제개발 정도가 비슷하므로 서로간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용이함. 또한 신흥국이 수행하는 기술협력은 수원국의 수요와 연계되어 있어 실제로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함.

※ 참고: 인도네시아의 개발협력

- 인도네시아는 중소득국으로서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으로 활동함.
 - 수원국: 외부로부터 원조자금을 제공(연간 국가예산의 5% 미만)받아 lower middle income country에서 upper middle income country로 발돋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격차, 환경사업 발전, 인프라 건설 관련 부분에 대한 개발협력의 수요가 있음.
 - 공여국: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형태로 개발지식과 경험을 저소득국과 공유함. 주로 빈곤감축, 분쟁해결, 농업확대, 재난극복에 대해 다루며 지식공유 외 역량배양,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중기적 개발계획(2009-2014)에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포함하고 국가개발협력부처의 차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음.
 - * 다자관계의 개발협력 보다 남남협력·삼각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대외 외교·경제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함.
 - 인도네시아는 남남협력·삼각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개발경험을 제공하고, 협력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국으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함. 또한 인도네시아가 제공하는 개발경험에 최상의 사례는 없으며 단지 협력 대상국의 개발을 위해 얼마나 적합한 사례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 인도네시아 남남협력·삼각협력은 개발 파트너 간 상호이해와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함. 또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협력활동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개발효과성을 고려하여 파트너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을 중시함.
-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원조 관련 거래비용을 줄이고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에서는 Jakarta Commitment가 2009년 1월, 26개 개발 협력국에 의해 승인됨.

- Jakarta Commitment 액션플랜 추진 및 resource 제공을 위해 A4DES(Aid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Secretariat) 설립
- 개발과정에서의 성평등 문제 및 원조 효과성 제고에 대해 주목하며, CSO, 민간부문 등과의 개발관련 dialogue를 확대하려고 노력함.
- (3 pillar) 개발을 통한 국가 주인의식 강화, 개발을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 형성, 개발프로그램 결과를 발표·설명